

## 가인과 아벨: 죄가 문 앞에 엮드릴 때 (창 4:1-12)

### 1.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1-2절)

이로 보건대, 자녀 양육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1) 가인에게 ‘자기중심’인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고백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에는 ‘내가…했다’라는 하와의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이란 이름 역시 ‘얻음’이란 뜻으로, ‘내가 얻었다’고 하는 의식과 아들을 통해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욕심이 투영되었습니다.
- (2) 아벨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벨에 대해서는 가인과 대조적으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공기’, ‘숨’, ‘허무’인 것만 보아도, 아벨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아벨이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 (3) 자녀 양육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부모의 자기중심성입니다: 부모의 자기중심성과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결합되면, 결과적으로 아이를 망칩니다. 부모는 ‘내가’라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합니다.

나눔

내 안의 자기중심성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4절, 히 11:4)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 (1)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이유는 마음과 삶의 중심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상의 것을 드린 것이며,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진심 없이 건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 (2)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맹수처럼 도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생의 중심에 두면, 거기에서 질투, 시기, 피해의식, 무책임, 파괴적 분노와 증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는 언제든지 맹수처럼 포악한 공격성을 드러내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나눔

요즘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헌신(service)의 시간’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받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 3.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까?(6-7절, 9a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1) **질문으로 성찰을 촉구하십니다:** 가인이 제사가 거절됨으로 격분하자, 하나님은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가인 스스로 자신의 분노가 타당한지, 그가 느끼는 자기연민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라는 촉구입니다.
- (2)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 (3) **죄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얹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가인을 보호하시고 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 (4)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먼저 성찰합니까, 아니면 남탓, 환경 탓을 먼저 합니까?  
내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4.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경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9b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10-11절)

9.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 (1)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경고에 침묵과 책임 회피로 반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도리어 마음의 분노와 피해의식, 자기 연민에만 불을 지피며 치밀한 계획하에 아벨을 죽입니다. 심지어 살인 후에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 (2) **그 결과, 가인은 아담보다 무거운 저주를 받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가인에게 저주가 선고됩니다. 가인은 아담이 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노동의 저주를 짊어집니다. 또한 경작지인 땅에서 버림받아 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 (3) **아벨의 피는 정의를 호소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인과 같은 피해의식과 좌절, 자기연민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호소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가 되어,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죄가 문앞에 얹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힘입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